

# 세월호 참사 때 헬기, 위독한 학생 방치 해경청장 등 고위간부들만 태우고 갔다

특조위 '병원 이송 헬기로 20분이면 되는데 4시간41분 걸려'  
수색·후속조치 지연 지적...유족 "헬기 태웠으면 살았을 것"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 걸렸으며, 구조헬기는 물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이 학생을 방치한 채 해경 고위 간부들만 태우고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헬기 대신 배로 옮겨진 학생은 결국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

무"라면서 "조사 결과 참사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된 뒤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A 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

송하라고 지시한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A 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 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헬기를 태우고 떠났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륙했지만, 오후 7시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결과 A 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 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명항에 도달했고, 밤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20여분이

만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4시간 41분만에야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A군은 병원 도착 5분 만인 이날 밤 10시 10분 사망했다.

박 국장은 특히 "A 학생의 경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A 학생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간발표 현장에 참석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분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2월부터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포  
먼지떨기식 지연 수사도 금지

12월부터 장시간·심야조사와 별건수사가 제한된다. '먼지떨기식' 지연 수사도 금지되며,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지난 31일 공포됐다. 규칙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

관 허가를 받아야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새 수사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가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검찰 송치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수역원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인데, 승리는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산불진화장비 점검 가을철 산불예방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과 산림팀 산불진화대원들이 지난 31일 운동장 산불감시소소에서 등진검 등 산불진화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

##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다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의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채용과 퇴직, 재채용의 과정 등을 거치며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5개월간 근무했다.

근로계약은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단위로 이뤄졌으며, 5개월 정도(2014년 1월 1일~6월 8일) 근로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부산시가 부당해고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부산시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입사와 퇴사, 재입사를 반복한 A씨가 2년 넘게 '계속 근로'를 했는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의 공백 기간이 5개월 18일로 짧지 않은 점, 공백 기간이 일시적인 휴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광주 상무중-치평중 통합 무산

광주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 통합이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진로 체험센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서구의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백지화됐다.

지난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무중과 치평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

(50%)을 넘기지 못하면서 통합 추진이 중단됐다. 두 학교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적정규모 육성 사회적 논의기구'는 상무중(학부모 281명)·치평중(338명) 중 한 곳이라도 찬성률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통합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4~30일 이뤄졌으며

투표율은 상무중 89.7%, 치평중 92.9%였다. 시교육청은 사회적갈등 등 후유증을 우려해 학교별 찬반 투표수 등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과 광주시 서구는 두 학교를 통합하고 남는 부지에 각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체험센터와 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용주차장을 갖춘 '두드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소요 예산은 진로체험센터 300억원, 복

합문화센터 108억원으로 각각 절반 상당의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워진 서구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확보해놓은 국비 45억원도 반납하게 됐다.

시교육청 역시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할 새로운 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행정적 부담을 안게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PC방서 행패 부리다 체포된 40대, 경찰관에게도 주먹질

PC방에서 행패 부리다 수갑을 차게된 40대 남자가 풀려나자마자 경찰관에게 주먹질 해 공무원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모(46)씨는 지난 30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PC방에서 주인 A(5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차례 폭행하고,

경찰서로 불려온 뒤에는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 C(28) 순경의 얼굴에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풀자마자, 조씨가 갑자기 C순경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으며, 조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